



전남대 불문과 학생들의 특별한 영화제

지역 대학생들과 광주극장이 의기투합 해 특별한 영화제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자유분방한 프랑스식 사랑의 진수부터 이민 또는 난민 문제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 영화를 만날 수 있어 의미가 있다.

제1회 광주프랑코포니영화제가 오는 16~18일 광주극장에서 열린다. 프랑코포니는 프랑스어를 모국어나 행정 언어로 쓰는 국가들로 구성된 국제 기구를 말한다.

이번 영화제는 전남대학교 불문학과와 광주극장이 손잡고 만든 기획이다. 전남대 불문과 이수원 교수는 평소 문화기획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부산 영화제에서 인연을 맺은 광주극장 김형수 이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프랑스어를 쓰는 국가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김윤정·김희주·안연주·이민주·정예림 학생과 프로젝트 동아리 '쎄떼떼 CET ETE(그 해 여름)'이라는 그룹을 결성해 이번 영화제를 준비했다. 이들은 영화 선정부터 트레일러와 포스터 제작까지 모두 맡아 진행했으며 앞으로 매년 한차례씩 영화제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남대 산학협력 일환으로 글로벌시대에 요구되는 문화다양성 의식과 국경을 넘어선 연대와 소통 증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영화제에서는 벨기에, 캐나다, 레바논 등 프랑코포니 국가들의 영화 총 5편을 상영한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러브어페어 :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2020·프랑스)은 흔하고도 특별한 소재인 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한 달콤하고도 씩씩한 드라마다. 임신 3개월 차인 다프네가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남편의 친척 막시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에밀리 드렌, 뱅상 마케뉴 등 매력적인 배우들의 앙상블은 보는 재미를 더한다.

'가버나움' (2018·레바논·프랑스)은 출생기록조차 없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온 12살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시리아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제71회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은 이 작품은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전쟁, 환

동아리 '쎄떼떼' 결성...프랑스어 쓰는 국가들의 사랑·인권이야기 16~18일 광주극장...개막작 '러브어페어' '가버나움' 등 5편 상영



'러브어페어'



'가버나움'

경, 배고픔 등이 아니라 어른들의 무관심이라고 전한다.

'안티고네' (2019·캐나다)는 반역자 오빠의 시신을 거두지 말라는 명령을 거역한 죄로 생매장당한 오이디푸스의 딸 안티고네의 이야기인 그리스 비극을 2008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실제 벌어진 난민 사건에 접목시킨 영화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싶은 안티고네가 오빠 대신 감옥에 들어가면서 일약 SNS 영웅이 되는 내용으로 이민자 가족의 가족애를 그린다.

'소년 아메드' (2019·벨기에·프랑스)는 영화 '기생충'과 함께 72회 칸영화제에서 관심을 모았던 작품으로 감독상을 수상했다. 감독 장 피에르 다르덴과 빅 다르덴 형제는 종교적 극단주의에 빠진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벨기에가 직면한 현실을 영화에 담았다. 누가 봐도 평범한 13살 소년 아메드는 지역에 있는 이슬람 이맘에 이끌려 점점 종교적인 극단주의에 빠져들고, 자신의 선생님을 배교자라는 이유로 죽이려고 하지만 실패한다. 영화는 아메드가 왜 종교에 빠져들었는지에 주목하지 않는다. 아메드의 현재와 그가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극단주의로부터 벗어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레 미제라블' (2019·프랑스)도 상영한다. 영화 '레 미제라블'은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과 같은 프랑스 몽페르메유를 배경으로 한다. 영화 속 몽페르메유는 21세기임에도 여전히 빈곤하다. 이민자들과 빈민들은 경찰과 마찰을 빚으며, 치안 상태는 매우 불안하다. 영화는 이곳에 전근 온 경감 스테판과 소년 이사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한다. '21세기 장발장들이 만들어낸 분노의 목시록'으로 평가받는 영화는 제72회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17일과 18일에는 각각 정지혜 평론가와 허남용 평론가가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열린다. 관람료 5000원. 문의 062-530-3192, 062-224-5858. /전은재 기자 ej6621@



'평화'

인간의 삶과 자연에 대한 성찰

조각가 김홍곤 초대전, 30일까지 순창공립옥천골미술관

김홍곤 조각가의 작품에서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건 '표정'이다. 브론즈로 조형해낸 얼굴은 세세한 표정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거기에 살아 움직이는 듯한, 꿈틀거리는 육체의 강인함까지 더해지면 그의 조각 상에서는 세상에 두발 딛고 살아가는,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조각가 김홍곤 초대전이 오는 30일까지 순창공립옥천골미술관에서 열린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브론즈, 테라코다, 합성수지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작업한 작품을 통해 다채로운 인간군상을 보여준다.

운주사에 있는 수호신의 형상을 참조해 한국적인 형상에 접근하려 꾸준히 노력해온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농부와 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과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 가족의 모습 등을 투박하고 목직한 작품으로 풀어냈다.

마치를 치겨들고, 광택이질을 하는 이들을 포착

한 '일하는 사람' 시리즈에서는 강렬한 생활력을 느낄 수 있으며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땅을 응시하는 '황무지', 두 팔을 펼치고 고뇌에 잠긴 이의 모습을 담은 '허수아비' 등에서는 삶의 애환도 읽힌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꼭 안는 '정담', '포옹', '수확', '한가한 날' 등의 작품에서는 평범한 일상의 풍경을 만날 수 있으며 동물이 함께 등장하는 '동행' 시리즈에서는 함께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그밖에 나무와 합성수지를 이용해 염소의 모습을 형상화한 '평화'는 해학적 느낌도 전해진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한 김 작가는 지금까지 10차례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파리·서울 등에서 열린 다양한 단체전과 초대전에 참여했다. 현재 광주시 미술대전과 전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이며 남도조각가협회, 백학조각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다

하승완 '모태 회귀 욕구' 전, 15일까지 대안예술공간 DDF

광주극장 옆 골목길엔 최근 작은 문화공간들이 들어서고 있다. 동네 서점 '소년의 서'를 비롯해 문화공간 '산수짜리'가 문을 연 데 이어 바로 얼마 전에는 대안예술공간 DDF(광주 동구 충장로 46번길 8-17)가 활동을 시작했다.

'소년의 서'가 현재의 위치로 이사하기 전 자리했던 곳에 문을 연 DDF(Deep Dark Fantasy)는 젊은 기획자들이 함께 꾸려나가는 곳으로 전시 주제에 따라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하승완 작가 초대전은 원도우 갤러리 형식으로 작품을 배치, 한밤중에도 불을 밝혀 24시간 내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모태 회귀 욕구'·전체주의적 욕망에서 노예적

자유를 발견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최하얀 큐레이터가 기획했다. 전시장에 걸린 '마조히스트' 등의 작품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들을 판타지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은 통제를 벗어난 불꽃이 맹렬하게 타오르는, 환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있는 곳으로 날 것 그대로의 그로테스크한 묘사와 강렬한 색감이 어우러져 관람객의 시선을 강하게 붙잡는다.

조선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하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 청년예술인지원센터, 대안예술시장 공간 묘수 2기 입주작가로 활동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다른 문화의 사람들



9~11일 온라인 개최

지구 곳곳,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다른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제3회 KIEFF 한국국제민족지영영화제(KIEFF)가 9~11일 한국국제민족지영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린다. 민족지영회는 지난 100여년의 역사동안 다양한 문화적 시각과 영상매체의 전통을 흡수하면서 발전해 온 영화를 뜻한다. 과거에는 인류학자들이 제작한 영화로 의미가 한정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영화제작자가 촬영대상과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며 얻은 이해를 다양한 영상 기법으로 담아낸 영화를 일컫는다.



'그냥 서핑이나 해라'

(사)한국시각인류학회(회장 이기중)가 주최하는 올해 영화제에서는 지난해 KIEFF 학생부문에 지원한 73개국 436편 중 최종 선정된 7편의 작품을 상영하며 삶의 깊숙하고 은밀한 모습, 일상의 작지만 마법 같은 사건 속으로 관객을 안내한다.

'바다의 신부' (2019·노르웨이)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부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며,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 (2019·인도네시아)은 법을 어겨서라도 환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원봉사대에 주목한다. '조우아-조우아' (2018·카메룬)는 테러단체가 저지른 학살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다루며, '그냥 서

핑이나 해라' (2019·네덜란드)는 호주를 배경으로 네 명의 여성 서퍼의 목소리를 쫓는다.

이밖에 영국 맨체스터의 노인돌봄센터 이야기를 통해 집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색하는 '그리운 내 고향' (2020·영국), 지속되는 가뭄 속 물을 찾고자 분투하는 인도의 한 마을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하늘 마을' (2018·인도), 멕시코 중부 고원지대 원주민 농부들이 지내는 전통 기구제를 그린 '비의 선교사' (2019·멕시코) 등도 만날 수 있다. 한국시각인류학회 홈페이지 참조. 문의 010-8729-187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